

#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무재해 준공 이룩

## **e-편한세상** 대림산업(주) 모종 e-편한세상 현장

온천지가 독일 월드컵 16강의 영원을 담아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있는 6월 하늘아래 무재해 준공의 영원을 담아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곳!

아산 모종 e-편한세상(김무진 현장소장) 대림산업 현장을 찾았다. 농부의 땅이 초록의 대지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모종에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무재해 준공으로 입주자를 맞이하기 위해 하루하루 안전 시공에 흐트러짐이 없다.

주변 단지 중에서도 으뜸으로 소문난 모종 e-편한세상 현장 사람들은 근로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부지런을 떠는 이 곳 사람들의 섬세한 손길이 현장 곳곳에서 느껴진다.



### 근간이 흔들리면 무재해는 없다 ■■■

안전에는 예외가 없다. 근간이 흔들리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는 안전이 모종 e-편한세상 현장의 안전이다.

이곳 현장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근로자들이 처음부터 꼭 지킬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뇌리에 심어주는 것으로 유명한 이 현장의 안전교육은 근로자의 복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반바지, 안전모 안에 일반모자, 안전화 아닌 간편한 신발 등을 착용한 근로자는 현장에 발을 붙일 수 없다. 모종 e-편한세상 현장은 안전에 있어 호락호락하지 않은 현장임을 각인시키고, 어느 누구도 이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전을 중요시해야 함을 근로자의 뇌리에 심어준다.

역척스러울 만큼 철저한 관리는 첫 스타트가 안전해야 무재해 준공으로 갈 수 있다는 이곳 사람들의 한결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 김 무 진 현장소장

### 안전은 혼자가 아닌 공유하는 것 ■■■

모종 e-편한세상 현장에서는 혼자하는 안전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안전을 추구한다. 현장의 위험요소를 공동으로 집중관리함으로써 무재해 현장을 이끌기 위함이다. 일목요연하게 현장 게시판에 현장 상황을 게시한 것도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김무진 소장은 “안전관리자가 많아서 안전이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로자가 이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이 중요합니다.”라고 안전시스템의 중요성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시스템 중 하나가 안전정보 공유인 “월간 SOM 운영”이다. 매월 시행되는 공정에 대해 세부 안전대책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게시하는 것으로 어느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많은 불량의 시공안전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매월 박민순 안전과장의 손을 거쳐 재 정리된다.

### 모종 e-편한세상 현장만의 안전을 찾아 ■■■

모종 e-편한세상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랑거리가 있다. 첫째가 “다윗과 골리앗”이고 다음이 “금연운동”이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은 모종 e-편한세상 현장에서 리프트와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2년에 걸쳐 이곳 현장에 맞는 리프트와 타워크레인 안전을 현장 직원 전원이 참여한 “안전 학습팀”에서 만든 것이다. 지금은 직원 모두가 리프트,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었을 만큼 “안전 학습팀” 운영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실은 본사에서 발표되었고, 타 현장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으며, 안전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을 받는 등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외적인 반응이





아니라 2년여의 긴 기간 동안 직원이 하나가 되어 단일분야에 대해 연구하여 안전기준을 만들었다는데 있다.

다음은 웰빙시대와 함께 한창 바람이 일었던 “금연운동”이 이곳 현장에서도 일고 있다.

안전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건강, 안전, 품질에 공감대가 “금연운동”이라 여기고 지역 보건소의 도움으로 시작한 금연운동에 대부분의 현장근로자가 참여하고 있고, 이 중 30%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담배를 멀리하고 있다. 금연 관련 표어도 근로자가 제안토록하고 포상을 함으로써 근로자 중심의 금연운동을 이끌고 있다.

김무진 현장소장도 평소 4곽을 피우는 애연가였으나 금연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까지 금연을 이어가고 있다.

## 기분 좋은 아침, 안전한 하루 ■■■

모종 e-편한세상 현장의 아침은 기분 좋게 시작한다. 아침에 전하는 첫 마디가 어떠한가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의 하루 기분을 좌우한다는 것이 박민순 안전과장의 말이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매일 아침 어떤 말을 할 때 기분이 좋을까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쁜 생활속에서도 책을 찾는다.

이와같이 배려하는 마음은 무재해 준공 이후 입주할 고객을 위한 마음으로도 이어진다. 인간공학을 도입한 현장 조경과 시설물들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준공! 따뜻한 마음을 담아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무재해 준공을 현실로 만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종덕 기자)